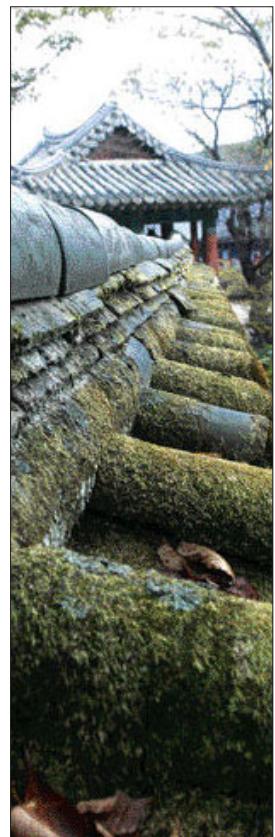


[여행]

경북 김천 직지사



천년 고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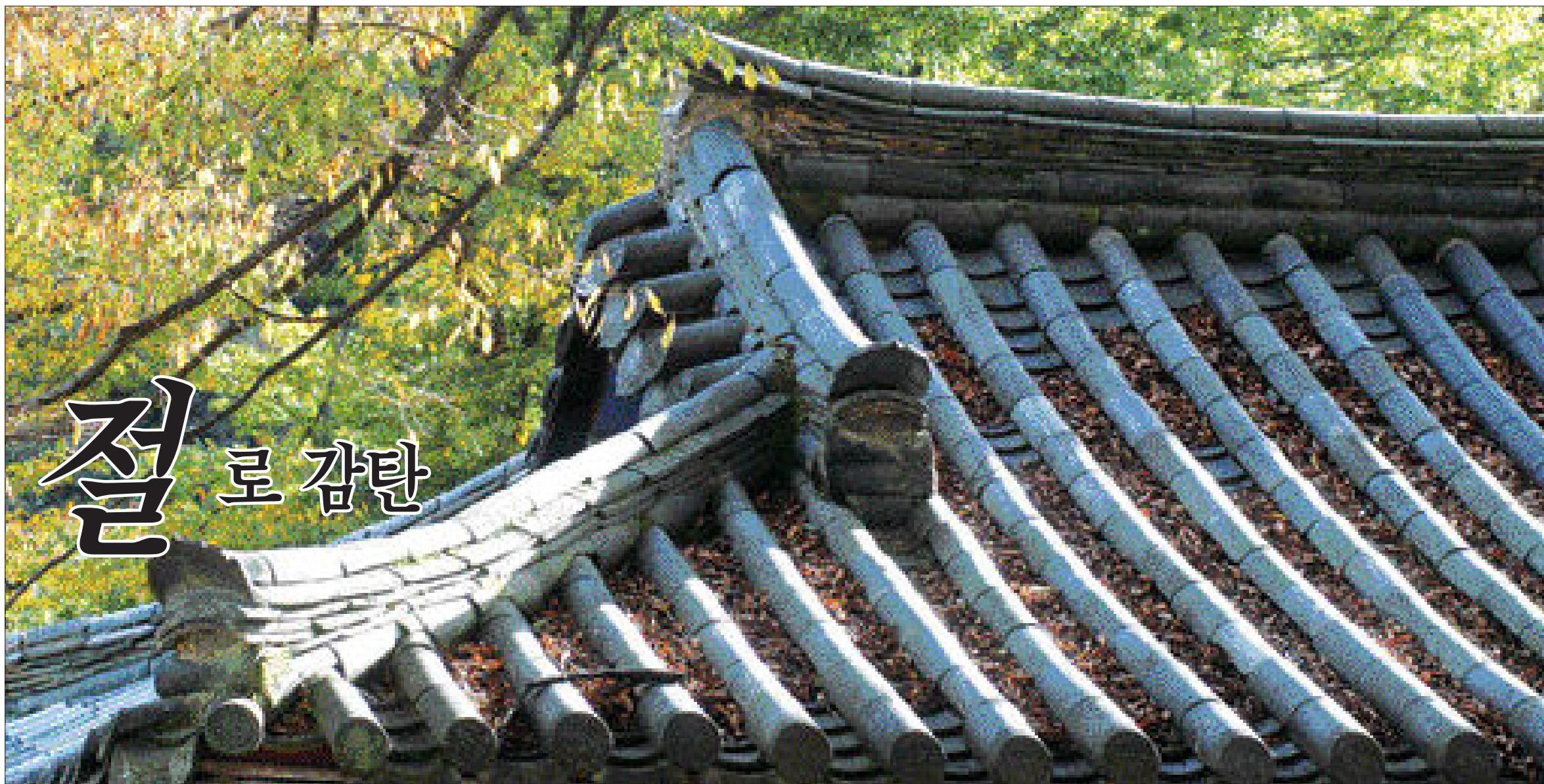


가을철만 보면 멜랑꼬리한 분위기로 미음이 동한다. 여기저기 지천으로 널린 노란은 행잎과 붉은 단풍들이 마치 내게 손짓을 하는 것 같아 길을 나서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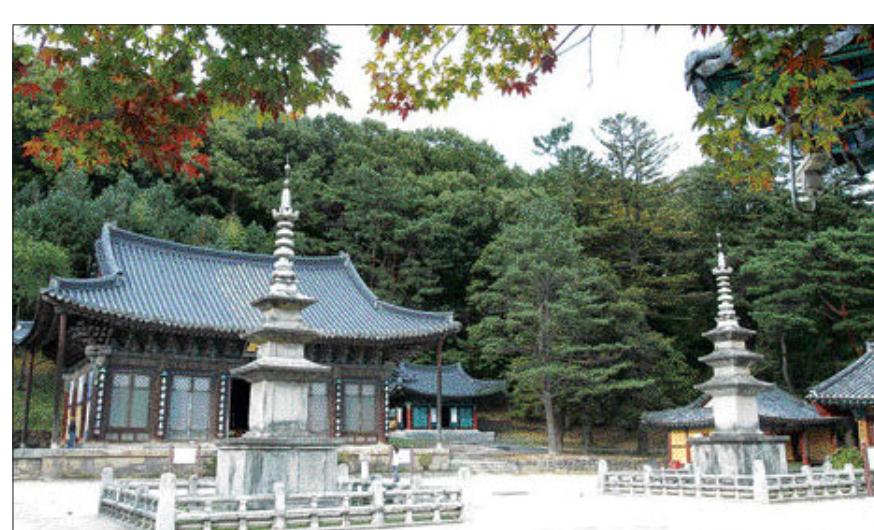
가을이면 빠지지 않는 단풍 여행도 좋지만 고즈넉한 산사에서 감상하는 가을풍경은 무언가 바꿀 수 없는 감흥을 준다.

최근 끝난 제87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경북 김천은 자그마한 도시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소도시다. 이곳에서 택시기사에게 김천에서 가볼만한곳을 데려다 달라면 단연 직지사를 소개한다.

직지사 절도 좋지만 그 입구에 있는 직지문화공원을 둘러보면 멀리 텐가 하나 얻은 것 같은 풍성함과 오감 절했다는 느낌을 갖게된다.



절로 감탄



노란 은행나무가 가을만 되면 사방을 감싼다는 김천 직지사. 황악산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산세가 높고 험준하지 않아 마치 평지에 있는 것 같은 그곳은 신라 놀지왕2년(418년)에 창건된 고찰이다. 이 절은 아도화상이 지금의 경북 구미에 도리를 짓고 나서 손을 들어 멀리 서쪽의 산 하나님을 곧게 가르키며 “자 산 아래에도 좋은 절터가 있다”고 하여 지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.

임진왜란때는 사명대사가 출가한 절이라는 이유로 왜군에게 혹독한 보복을 받아 40여동이 불타고 일주문과 천왕문, 비로전 만이 남은 어려움도 겪었다.